

지난달 3일, '2005 환경책 큰잔치' 개막식이 교보문고 광화문점 도로공원에서 열렸다. 환경정의, 풀꽃평화연구소, 교보문고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환경책' 만을 모아 분류·전시했다. 특히 환경책을 선정하는 작업을 통해 환경문제를 깊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2년 처음 실시된 후 올해로 4번째를 맞았다.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행사기간 동안 '우리 시대의 환경고전' '2005 올해의 환경책' '다음 100년을 살리는 100권의 어린이 환경책' 등 기본환경도서로 선정된 400여 종의 환경책 전시와 함께 시민들이 참여한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2005 환경책 큰잔치 '환경책 읽으며 환경문제 깊이 인식'



최성각(작가·환경책큰잔치 실행위원장) 씨는 잔치를 여는 말을 통해 "환경책이야말로 환경문제를 독자들에게 연결해 주는 귀중한 장치"라고 말했다.

'환경책, 환경문제와 독자들을 연결하는 귀중한 도구'

'우리네 삶과 환경을 다룬 책'을 뜻하는 '환경책'이란 단어가 보통명사로 바뀐 것은 4년 전, 환경책 큰잔치가 처음 시작되면서부터다. 작가이며 풀꽃평화연구소 소장으로 환경책큰잔치 실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성각 씨는 잔치를 여는 말을 통해 "환경책 속에는 자연환경에 대한 고발과 감탄이 모두 들어 있다"며 "환경책이

야말로 환경문제를 독자들에게 연결해 주는 귀중한 장치"라고 말했다.

환경정의 공동대표 박은경 씨는 개막식에 참석한 부모와 아이들을 염두에 두고, "환경 속 '공존'의 개념을 인식해야 하며 무엇보다 어린이들이 우리가 쓸 자원을 어른들이 잘 보살피고 있는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세대 어린이'로 선정된 양정초등학교 6학년 권예슬 양의 축사도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에선 환경문제를 진지하게 다룬 읽을 만한 책들이 엄격한 심사 끝에 선정, 발표됐다. '우리 시대의 환경고전' (12권), '2005 올해의 환경책' (12권), '올해의 어린이 환경책' (10권) 등 환경 관련 양서가 대거 소개돼 주목을 받았다. 이날 '우리 시대의 환경고전'을 발표한 장성익(《환경과생명》주간, 환경책큰잔치 실행위원) 씨는 "장소와 시대를 초월해 오랜 세월 동안 영향력과 전파력을 가져왔으며, 세상과 사람에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책들을 환경고전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 문제 구체적 인식' 계기...

북크로싱과 유사한 '떠나라 환경책 캠페인도'

이처럼 환경책 큰잔치는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환경을 시민들에게 더욱 쉽게 안내하는 데 의의를 둔다. 그래서 '환경'이란 막연하고 관념적인 단어를 그것과 관련한 책의 분류·선정작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리고 읽히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경책 출간을 소명으로 삼고 환경문화운동을 벌여온 출판사, 작가, 번역가를 위해 환경책 큰잔치 실행위원회에서 제정한 '한우물상'은 환경전문 번역가 이한중 씨에게 돌아갔다. 그는 《울지 않는 늑대》《동물원

의 탄생 《씨앗의 희망》 《지렁이》 등 20여 권의 환경책을 2년여 기간 동안 꾸준히 번역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전까지 그물코(2004), 따님, 수문출판사(2002) 등 좋은 환경책을 만든 출판사가 상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개인으로서 처음으로 한우물상을 받은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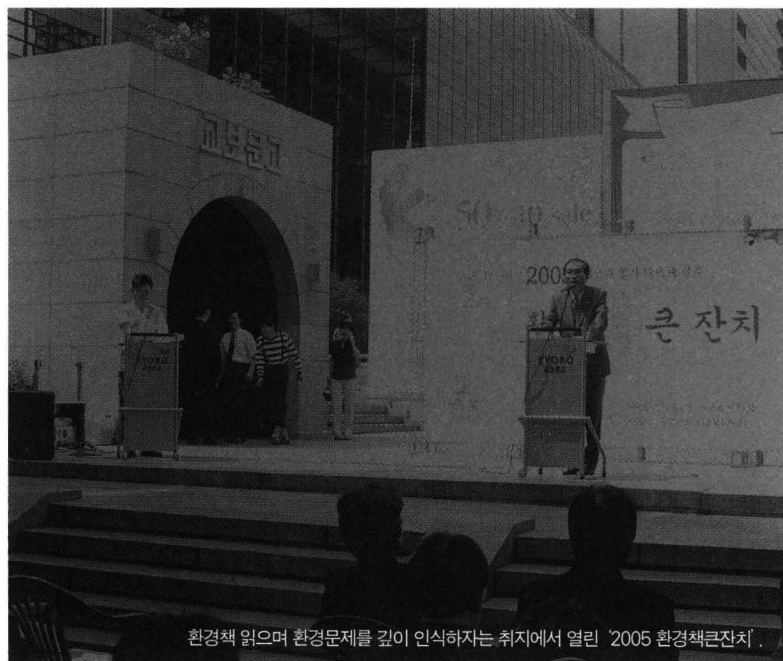
'북크로싱Book Crossing'을 응용한 '에코북크로싱Ecobook Crossing'도 전개됐다. 개막식이 열린 당일, 행사장에서는 책을 모든 사람들이 두루 돌려보자는 의미에서, '떠나라 환경책'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다음 100년을 살리는 120권의 환경책'에 선정된 양서를 개막식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했다. 이는 자신이 읽은 책을 익명의 사람과 돌려보는 새로운 환경책 읽기 운동으로 지식과 정보, 감동을 나누는 새로운 시민교감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모았다. 그 속엔 환경책을 나눔으로써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소중함을 깨닫고, 이를 통해 친환경적 삶을 실천하여 시민들 스스로가 환경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환경책 큰잔치, 새로운 환경운동 전형' 기대

이 외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됐다. 제7회 '교보환경 문화상 환경예술인상' 수상자인 황윤 감독의 <침묵의 숲> <작별> 등 영화상영, 《아픈 아이들의 세대》 《음식국부론》의 저자 우석훈 박사와 함께 하는 '저자와의 대화', 친환경 페인트로 직접 그림을 그려 만드는 '장바구니 만들기' 등 다채로운 환경·문화프로그램이 교보문고 광화문점과 강남점에서 진행됐다.

행사 관계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자세 변화가 결국 사회의 변화를 이루고, 나아가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며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와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는 환경책 큰잔치가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새로운 환경운동의 전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민**

취재_홍이현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환경책 읽으며 환경문제를 깊이 인식하자는 취지에서 열린 '2005 환경책큰잔치'.

환경책 큰잔치 실행위원들이 선정한 책

● 우리 시대의 환경교전

《월든》(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저, 이레) / 《모래 군(郡)의 열두 달》(알도 레오폴드 저, 따님) / 《오래된 미래》(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저, 녹색평론사) / 《침묵의 봄》(레이첼 카슨 저, 에코리브르) / 《작은 것이 아름답다》(E. F. 슈마허 저, 문예출판사) / 《성장을 멈춰라!》(이반 일리히 저, 미토) / 《우리들의 하느님》(권정생 저, 녹색평론사) / 《간디의 물레》(김종철 저, 녹색평론사) / 《한 살림 선언문》(장일순 외 저, 한살림) / 《나무를 심은 사람》(장 지오노 저, 두레) / 《기아》(제임스 러브록 저, 갈라파고스) /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더글러스 러미스 저, 녹색평론사)

● 2005 올해의 환경책

《강이, 나무가, 꽃이 돼 보라》(데이비드 스킨?오이와 게이보 저, 나무와숲) / 《새벽의 건설자들》(코린 맥러플린·고든 데이비드슨 저, 한겨레신문사) / 《농부와 산과 의사》(미셀 오당 저, 녹색평론사) / 《자연의 재앙, 인간》(프란츠 부케티츠 저, 시아출판사) / 《에코데믹, 새로운 전염병이 몰려온다》(마크 제롬 윌터스 저, 북갤럽) / 《동물의 역습》(마크 롤랜드 저, 달팽이) / 《좁쌀 한 알》(최성현 저, 도솔) / 《레이첼 카슨 평전》(린다 리어 저, 산티) / 《희망의 경계》(프란시스 무어 라페?안나 라페 저, 시울) / 《아픈 아이들의 세대》(우석훈 저, 뿌리와의 파리) / 《죽을 먹어도》(권정생 저, 아리랑나라) / 《신개 발주의를 멈춰라》(조명래 외 저, 환경과생명)

● 올해의 어린이 환경책

《가로수 밑에 꽃다지가 피었어요》(이태수 저, 우리교육) / 《개구리랑 같이 학교로 갔다》(밀양상동초등학교 어린이 20명 저, 보리) / 《나무 의사 큰손 할아버지》(우종영 저, 세계절출판사) / 《남대천에 연어가 올라오고 있어요》(성기백 저, 보림) / 《레이첼 카슨》(에이미 예를 리히 저, 아이세움) / 《매미, 여름 내내 무슨 일이 있었을까?》(박성호 저, 세계절출판사) / 《바다로 간 가우디》(다지마 신지 저, 계수나무) / 《바다로 간 큰밀잠자리》(김용택 저, 푸른숲) / 《지구는 대단해》(고하라 도모유키 저, 아이세움) / 《지구에서는 1초마다 축구장 하나만큼 초록빛이 사라지고 있어요》(다나카 아키요시 저, 황매)

이 외에도 '청소년을 위한 환경책 추천도서' '다음 100년을 살리는 120권의 환경책', '다음 100년을 살리는 100권의 어린이 환경책' 등이 선정됐다. 특히 '우리 시대의 환경교전'은 한 사회에 끼친 영향력과 대중적 설득력과 전파력, 주제의 생명력과 내용의 진정성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2005 환경책 큰잔치 실행위원들이 심사숙고 끝에 선정한 것들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eco.or.kr) 참조.